



[라이프] 옷·SW는 물론 데이터·적금까지 없는게 없는 편의점 너



Life

[바이오] 독감백신 접종 사망자 9명 '백신 공포증' 확산 L2



문화·운동으로 '토닥토닥'... 서울시·자치구 마음방역 나선다

서울시 문학비축기지서 랜선공연 강남구 가족 공동체 의식 강화 지원 중구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 제공 서북병원 전직원 대상 '나만의 도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 시립병원이 마음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시와 강남·중구, 서북병원에 따르면 코로나 블루(우울감) 극복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우선 시는 오는 12월 공연 속 랜선 공연 '공간을 노래하다'를 선보인다. 시는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보이스씨어터 몸(MOM) 소리'의 공연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공연 관람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시는 "문화비축기지의 공간 특징과 다양한 소리가 어울려 즉흥적으로 창작하는 소리 공연을 비대면 랜선으로 운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서울시

영한다"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공연 속 공연예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씨어터 몸 소리는 목소리를 활용해 공연을 창작·발표하는 단체다.

문화비축기지 T1에서는 '파빌리온의 노래'가 무대에 오른다. 엄마의 자궁과 같은 유리 파빌리온의 내부 공간을 자장가로 탐험하며 고통함과 평화, 휴식, 치유의 기분을 체험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공연은 어린 시절 할머니가 불러주던 '둥기 둥기' 하며 열려주는 소리로 시작한다. 이어 숲에서 썩임볼 소리와 함께 이국적인 음식의 자장가가 흘러나오고 맥박처럼 반복되는 기타 선율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마지막으로 자연의 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마무리된다.

문화비축기지 T4에서는 '복합문화공간의 노래'를 만나볼 수 있다. 도시재생을 통해 탄생한 문화비축기지 T4는 도시와 자연, 과거와 현재의 소리가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동굴로 탐방을 떠난 듯한 움직임과 주변에서 들리는 다양한 음악에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아트스페이스에서는 '용궁의 노래'가 시민들을 맞이한다. '빛의 바다 소리를 만나다'를 주제로 아이와 엄마가 소리 여행을 떠나는 컨셉의 공연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다음달 9, 16, 23일 영상을 촬영해 12월 2일 이후 랜선 공연 '공간을 노래하다'를 문화비축기지 '아트앤스토

리'에 게시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11월 6일까지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가족과 스무고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구는 가족구성원 중 한명과 함께 주어진 20가지 질문지를 작성해 제출한 학생 100명에게 마스크와 손세정제로 구성된 방역 꾸러미를 제공한다. 참가 희망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가족구성원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청소년의 심리 정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중구는 내달 26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인 블루터치 운동 '오늘부터 1일'을 시행한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고립된 정신질환 대상자에 맞춤형 비대면 신체기능 개선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구는 "이동의 제한 없이 정신질환 만성화에 따른 손상을 회복하고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코자 한다"면서 "정신장

에 대상자의 부정적인 정서와 스트레스 감소로 정신건강이 증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서수도사업소와 서북시립병원인 직원들을 위한 마음건강 챗기에 힘을 쏟는다. 강서수도사업소는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실과 고충상담을 운영한다.

사업소는 "코로나19 관련 상담건수가 누적 40만3432건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심각하다"며 "메일, 전화, 대면 등의 비공개 상담으로 업무처리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공감, 치료·해결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립 서북병원은 이달 말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나만의 도서'를 지원한다. 독서를 통한 코로나 우울감 극복을 목표로, 1명당 1권씩 읽고 싶은 도서를 권당 2만원 내 범위로 지원한다.

서북병원은 "코로나19로 고군분투 중인 직원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나만의 도서로 기쁨을 얻고 삶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무단 방치' 키포드... 지하철역 인근 거치대 설치

서울교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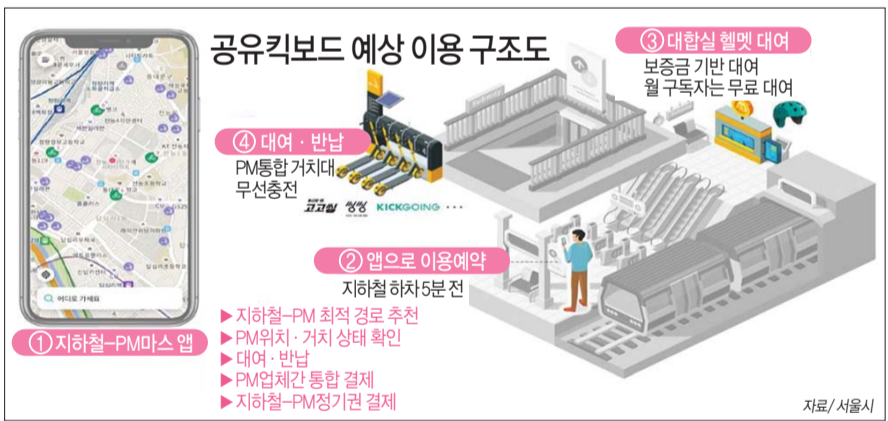
공유키포드 주차·안전문제 해결

서울 지하철역 주변에 공유형 전동키포드를 주차하고 충전하는 시설이 생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3일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케이에스티인텔리전스(KSTI)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동키포드 노상주차와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역 인근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KSTI는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 부지에 전동키포드 충전거치대와 헬멧 대여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사는 부지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맡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년 중 1~



5개 역사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환승 할인처럼 지하철을 타면 키포드 요금을 깎아주거나 버스-키포드 연계이용권을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KSTI는 이를 위해 여러 키포드

공유업체의 예약·결제 기능을 하나로 합친 전문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KSTI의 안정적 거치대와 편의시설 운영을 통해 역사 근처에 방치돼 있던 공유 키포드가 정리된다"며 "안전과 편의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포스트 코로나 도시재생의 미래 논의

22~23일 '도시재생 국제 콘퍼런스'

서울시는 이달 22~23일 '2020 서울 도시재생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국·영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회의 참가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도시재생의 미래와 전략'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도시재생의 가치와 비전을 조명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한다. 또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이번 행사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의 '어반 옥토퍼'와 연계해 진행된다. 유엔 해비타트는 각 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단체와 협력해 도시개발과 도시재



생,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반 옥토퍼는 유엔 해비타트가 파트너 국가·도시·기관과 함께 매년 10월 전세계에서 추진하는 행사·활동이다.

22일 오후 2시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서정현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도시 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재생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도시공간을 전환할 창조적 해법의 하나로 '커뮤니티'의 가치에 주목하고, 서울형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주요 가치를 제시한다. /김현정 기자

파주 '헤이리 여행스테이션' 오는 24일 개장

관광정보·휴식공간 제공

파주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헤이리 여행스테이션이 오는 24일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고 21일 밝혔다.

헤이리 여행스테이션은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필요한 관광정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4월 조성됐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정식운영 시기가 늦어졌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에 따

라 정식운영을 시작하고 이에 맞춰 기념 방문행사도 진행된다.

방문행사는 10월 24일 토요일부터 11월 1일 일요일까지 9일간 진행되고 일정조건 충족 시 헤이리 기념품 증정, DMZ 평화 꽃반지 만들기 체험(10.31.~11.1.) 등 준비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행사기간 동안 헤이리 갈대광장에 위치한 여행스테이션(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0-21)을 방문하면 된다.

/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한국노바티스 바이오·디지털헬스 우수기업 발굴한다

서울시는 한국노바티스와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헬스엑스셀린지 서울'을 공동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바이오·디지털헬스분야에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 7년 미만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헬스엑스셀린지 서울 공식 페이지에서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0월 22일 (木) 음력 : 9월 6일

수도권 날씨 13~18°C

운중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47 | 해질 / 17:46

지역별 날씨: 연천 11/18, 동두천 11/18, 가평 8/18, 파주 10/17, 서울 13/18, 양평 10/18, 인천 14/17, 수원 13/17, 용인 13/17, 평택 9/1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